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도서관상호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김 창 근*

목 차

- I. 서론
- II. 도서관협의회 현황
- III. 도서관상호협력활동 현황
- IV. 결론 및 제언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도서관이, 단일 도서관에 의한 자료제공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도서관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즉, 제한된 자체의 정보자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또는 제한된 자체의 내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래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도서관들이 부분적으로 기능상의 독자성을 버리고 상호 의존관계를 맺은 것을 도서관상호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회원 도서관간에 소요되는 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거나 분담하여 목록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보존하는 활동을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는 주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참여도서관들에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계산소 과장

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도서관상호협력기구는 한국과 같은 도서관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하여 한국에 설립된 도서관상호협력기구는 1993년 말까지 모두 9개이며, 이러한 도서관상호협력기구는 각각의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모되어 왔다. 창립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협력활동이 활발한 집단이 있는 반면에 협력활동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일체의 조직활동마저도 중단한 협력기구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현재 대단히 다른 상황에 있다.

『Library Trends』 1975년 10월호에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이 특집으로 다루어지고 1976년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도서관에서의 자료공동활용분야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자료의 공동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됨¹⁾으로써 자료의 소유개념이 개별도서관의 소유에서 공동의 소유개념으로 바뀌어진 이래로 미국에는 1980년대 말 현재 422개²⁾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소수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의 구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에서 기존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현상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나 진행중인 협력활동 내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도서관상호협력기구와, 참여하고 싶은 협력기구를 선택하고자 하는 단위도서관에게 있어서는 기존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협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유형별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베시머(Susan P. Besemer)³⁾는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평가에 관하여

1) Allen Kent and Thomas J. Galvin (eds), *Library resource Sharing : Proceedings of the 1976 Conference on Resource Sharing in Libraries, Pittsburgh, Pennsylvania*, New : Marcel Dekker, 1977.

2) Anne Woodsworth, *Library Cooperation and Networks : A Basic Reader*, New York : Neal-Schuman Publisher, Inc., 1991, p. 3.

3) Susan P. Besemer,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Library Networks,” *Resource Sharing and Information Networks* 4 : 1(1987, 1) : 17-38.

발표된 연구실적이 빈약한 것에 대하여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평가에 관한 연구가 도서관학 분야의 문헌상 정식으로 다루어 진 것은 그리 많지 못하다. 그나마 대부분의 경우에 개별 면담을 통하여 얻은 정보이거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색인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부용 문헌의 형태로 남아 있을 뿐” 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평가를 위한 기준은 설정하고 이를 자신의 협력기구나 참여하고 싶은 협력기구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적용하기는 쉬우나 여러 형태의 협력기구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빈약한 상황을 캐내어 닦아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냄으로써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더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도서관간의 협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 모색의 첫 단계로서 기존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평가와 아울러 협력활동을 미미하게 실행하고 있거나 아예 그 활동을 중지한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근본적인 성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공통적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에 설립된 모든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실태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내용을 같은 표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범위

도서관상호협력기구는 여러 도서관들이 관중의 구별없이 회원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동이용을 목표로 협동장서개발, 분담목록, 협동보존, 장비공동활용 등과 같은 도서관간 상호협력활동을 도모하는 조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서지협력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완전한 조직체가 설립되거나 발전되지 못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회칙이나 규정에 자료의 공동이용을 사업목적 내지는 사업내역으로 명시하고 있는 각종의 도서관협의회를 그와 유사한 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 간주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4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일환인 상호대차활동을 부분적이거나,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자료의 상호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도서관집단은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설립된 9개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를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각 협력기구에서 출판한 문헌과 회의록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모든 협력기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전임, 현임의 운영책임자와 담당자의 면담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활동을 중지한 협력기구는 당시 운영담당자와의 면담을 위주로 하고 문헌과 통계자료를 병행하여 수집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1.4 용어의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다음의 용어는 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1) 도서관상호협력기구

도서관상호협력기구라 함은 관종의 구별이 없이 여러 도서관들이 상호협조 할 것을 합의하고 회원도서관간의 장서를 협동하여 개발하거나 분담하여 목록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협동하여 보존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개별 도서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형성한 도서관상호협력조직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서관협의회가 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추구하는 협력활동을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구조 또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 간주하여 도서관상호협력조직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2) 도서관상호협력활동

도서관상호협력기구를 배경으로 수행되는 각종 협력활동 즉,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 등의 협력활동 중에서도 특히 현실적으로 단일 도서관의 보유자료에 대한 질적, 양적 미비현상을 극복하기 위

한 방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료의 공동활용활동 즉, 회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되 원문 정보복사제공, 소재정보제공, 자료교환 등의 행위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도서관상호대차활동을 말한다.

3) 운영위원회

도서관상호협력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심의와 의결과 같은 총괄적이며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를 말하며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4) 실행위원회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실행하는 기구인 사무국과는 별도로 특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보유자료의 공동활용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2. 도서관협의회 현황

본 장에서는 한국에 설립된 도서관협의회에 대하여 1) 설립배경을 포함한 연혁, 2) 조직의 기반이 되는 회칙과 회원기관, 그리고 운영주체인 운영관리조직을 망라하는 협의회의 구성과 구조, 3) 협의회의 운영, 4) 협의회의 사업 및 활동내역, 5)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과 통신수단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수록함으로써 도서관협의회가 창출되게 된 배경부터 현황까지 개관하고자 한다. 본 장의 모든 내용은 각각의 도서관협의회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과 발행한 문헌을 위주로 하되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를 직접 방문하고 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전임자 또는 관련 실무자와의 직접 면담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한 질의응답자료를 보충자료로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2.1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가. 연혁

1963년 2월 8일,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6개 국립대학이 1963학년도 학생자율

6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경비징수 승인문제, 사서직 직제확립등의 안건에 대한 토의를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에서 『국립대학교도서관장회의』를 개최한 것을 국립대학도서관간 상호협력기구의 설립을 위한 첫번째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동년 3월 30일에는 경북대학교에서 도서관 실무자 9명이 참석하여 세부 항목별 심층토의를 한 이래로 매년 2회의 회합을 하였으며 1965년의 제5차 회의에서는 『전국국립대학교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로 개칭하고 매년 1~2회의 모임을 통하여 상호 관심사를 토의함으로써 집단내의 권익신장과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후 10년이 경과한 1972년까지는 도서관상호협력기구라기 보다는 6개 국립대학교 도서관간의 친목단체에 불과하다가 이후부터는 신설되는 국립대학교를 신입회원으로 영입하면서 종합대학이 아닌 여타의 국립대학에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제25차 회의(1977년)에서 『전국국립대학(교)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로 개칭하였고 1979년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명칭으로 정식 등록하고 회칙도 제정함으로써 명실 상부한 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 발족하게 되었으며 강릉대학 등 신설 국립대학이 추가로 가입하여 그 영역은 점차 넓어졌다.

1981년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인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로 정착되면서 당시 유명무실하던 『전국교육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도 점차적으로 흡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나. 협의회 구성과 구조

1) 정관(회칙) 및 규정

1963년의 첫 회합 이후 회원기관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의 활동에는 회칙이나 정관이 없어도 별다른 장애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회원기관간의 자료의 교환, 정보교류, 상호대차 등과 같은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에 따라 회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1979년 5월 25일 제28차 총회에서 의결된 회칙은 전문 5장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1993년 말 현재로 5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또한 도서관자료의 상호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4일에 개최된 제42차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전문11조로 구성된 『도서관자료상

호이용규칙』을 제정하였다.

2) 회원기관

국립대학 도서관장과 중견 관리자를 회원의 자격으로 규정(회칙 제4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관 단위의 단체를 회원으로 간주하며, 그 회원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1963년에 6개 국립대학교로 발족된 본 협의회는 1973년에는 9개교, 1983년에는 25개교, 1993년에는 45개교가 가입하여 창립 이후 총 650%, 과거 3년간 29%의 높은 회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본 협의회 회원기관의 성격은 1993년 말 기준으로 종합대학교 18개교, 4년제 공과대학 2개교, 산업대학교 7개교, 특수대학교 6개교, 교육대학 11개교 그리고 1개 사관학교인데 1993년 이전까지는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학만이 회원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1993년 말부터는 소속관청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모든 4년제 대학으로 회원기관의 범주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운영관리조직

본 협의회를 운영하는 책임지는 조직체인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이러한 임원은 감사를 포함하여 모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협의회는 전신체제로 발족된 1963년 이후는 물론 1979년에 정식 도서관협의회로 발족한 이래 1990년 중반까지 서울대학교가 간사와 회장기관을 고정적으로 맡아 왔으나 1990 회계년도부터는 회칙 제8조에 명시된 대로 2년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1994년 현재 간사기관은 전남대학교 도서관으로서 전문직 인력 3명이 본 협의회를 업무수행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이 아니고 간사기관의 전문직 인력이 과외로 봉사하고 있다.

다. 협의회 운영

1) 운영위원회

회칙 제3장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이 제안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 임원회의 구성요소와 업무내역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의 명칭하에 대부분의 회무가 처리되고 있다. 임원으로는 회장과 부회장 2인, 이사 약간명, 그리고 감사가 있으며,

모두 총회에서 선출되며 회무에 대한 실무는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간사와 서기가 담당한다.

45개 회원기관중에서 11개 기관에서 본 협의회의 운영을 맡는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므로 회원기관의 운영위원회 참여비율은 24% 선이다.

회장기관의 도서관장을 회장으로 하는 이사회는 대부분이 각 회원기관의 중견 직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평의회의 성격과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교도서관장회의』가 본 협의회의 운영을 후방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2) 총회

총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개선, 감사결과보고 및 결산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임원회의 위임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결기구이다.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 사이에 연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3) 재정

회칙 제6장에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기반을 회비, 보조금, 찬조금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연간 100만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특별한 별도의 수입이 없이 회비에만 의존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회비 납부실적은 100%로써 회원기관의 협조가 완벽하지만 회비징수 실적의 부진이나 세출의 증가와 같은 예기치 못했던 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비록 현재의 회비징수액이 종합대학교 35만원, 단과대학 25만원 수준일지라도 회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비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최대 99.1%, 최소 92.5%, 3년간 평균으로 95.9%에 이르고 전년도 이월금은 매년 1% 미만에 그치고 있음은 본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세입 확충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상호대차제도의 일환인 문헌정보복사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불되는 이용요금은 자료복사제공기관에서 별도의 수익을 기대하지 않

〈표 1〉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연도별 세입·세출 내역

금액단위 : 천원

항목별\연도별		1990년		1991년		1992년		3년간 평균	
	전 년 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세입	이 월 금	25	0.3%	35	0.3%	31	0.3%	30	0.3%
	회 비	7,969	99.1%	9,420	92.5%	11,150	96.8%	9,513	95.9%
	이 자	45	0.6%	34	0.3%	340	2.9%	140	1.4%
	기 타	-	-	700	6.9%	-	-	233	2.4%
계		8,039	100.0%	10,189	100.0%	11,521	100.0%	9,916	100.0%
세출	출 판 비	2,804	35.0%	4,366	43.0%	4,760	44.6%	3,977	41.4%
	행사 및 교육훈련비	1,000	12.5%	1,000	9.8%	1,200	11.3%	1,067	11.1%
	회 의 비	1,689	21.1%	1,859	18.3%	1,550	14.5%	1,699	17.7%
	운 영 비	1,911	23.9%	2,382	23.5%	2,561	24.0%	2,285	23.8%
	인 건 비	600	7.5%	-	-	600	5.6%	400	4.1%
	기 타	-	-	550	5.4%	-	-	183	1.9%
	계	8,004	100.0%	10,157	100.0%	10,671	100.0%	9,611	100.0%

고 순수한 복사요금으로 징수하는 수준으로서 본 협의회의 직접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 세입 내역에 포함할 수 없다.

라. 협의회의 사업 및 활동내역

1) 협력사업

회칙 제4장 12조에 의하면 국립대학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운영개선 그리고 봉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도서관업무 개선에 관한 공동연구 및 건의
- 도서관업무에 관한 간행물 출판

10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 실무연수 및 도서관학 세미나 개최
- 도서관 자료의 교환
- 각 대학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 도서관업무전산화 추진에 관한 연구

2) 교육훈련 및 출판활동

창립 이후 1989년 2월까지의 연간 1-2회의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를 12차까지 개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세미나의 명칭을 바꾸어서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를 연간 2회 개최하여 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1983년부터 본 협회회의 기관지 성격으로 년 1회 발행되는 『國立大學圖書館報』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논고와 정기총회 및 각종 협의회 관련 회의록을 비롯한 각종 현황과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협회회의 활동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1991년 1월에는 본 협회회의 숙원사업이었던 『連續刊行物綜合目錄』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1993년에는 이에 대한 추록이 발간, 배포되었다. 본 『連續刊行物綜合目錄』은 전체 회원기관의 소장내역을 망라하여 수록하지 못하고 종합대학교의 연속간행물 소장내역만 수록되었다.

마.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 및 통신수단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발간, 배포된 책자형태의 『連續刊行物綜合目錄』을 바탕으로 학술잡지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재 사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밖에는 도서관상호협력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또한 서울대학교를 주축으로 구축되고 있는 교육전산망은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방편으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상호 협력활동을 위한 통신수단으로는 팩시밀리와 우편, 전화 등이 이용되고 있다.

2.2 전국교육대학교서관협의회⁴⁾

가. 연혁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대학의 도서관 사서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공공도서관부회, 학교도서관협의회, 지구도서관협의회 등 도서관간의 각종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의 활동과 1960년대 초반 4년제 국립대학교서관간의 모임인 『국립대학교서관장회의』의 창립에 영향을 받고 미국 피바디 대학에서 연수과정을 마친 학교도서관 교과목 담당교수들과 더불어 1965년에 2년제 국립대학간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전국교육대학교서관협의회』로 명칭을 정하고 전국교육대학의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교육대학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 협의회는 1965년에 서울교육대학에서 개최된 제1회 정기총회를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창립된 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기존 11개 교육대학 이외에 5개 교육대학이 신설되면서 이들이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본 협의회는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협력활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1973년에 개최된 제9차 정기총회를 정점으로 본 협의회 활동은 하향 일로를 걷게 되었고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도 단위 1개 교육대학 존속정책과 잔여 교육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정책 등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에 따라 안동교육대학 등 5개 교육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으로 바뀌면서 자동 탈퇴하였고, 교육대학이 모두 4년제로 바뀌면서 교육대학 단위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조차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유사 집단인 『국립대학교서관협의회』에 흡수되어 『전국교육대학교서관협의회』의 활동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전국교육대학교서관협의회』는 1965년에 창립된 이래로 실제로 활

4) 『전국교육대학교서관협의회』에 관련된 역사자료는 대부분 소멸되었으나 단지 협력기구 창립당시부터 협력기구 활동 중단시까지 계속 회무를 주관해 왔으며 현재 공주교육대학교서관 주임 사서로 재직중인 서경모의 증언과 그가 일부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었음.

동한 기간은 1973년까지의 9년간이며 그 이후 1980년대 초반 즉, 서울교육대학이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한 1982년까지의 10년간은 교육정책의 난맥으로 인한 교육대학 자체의 존립에 관한 전환기였기 때문에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활동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나. 협의회의 구성과 구조

1) 정관(회칙) 및 규정

『전국교육대학도서관협의회』는 창립 당시에는 조직 운영의 기반이 되는 정관이나 회칙의 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원기관 상호간의 친목단체 정도의 역할을 지속해 왔으나 1960년대에 말기에 추가로 설립된 5개 신설 교육대학의 참여를 계기로 하여 1970년에 광주교육대학에서 개최된 제6차 정기총회에 이르러 비로소 회칙을 제정하여 동년 5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정된 회칙은 이후 단 한번도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

2) 회원기관

『전국교육대학도서관협의회』는 전국 각 시·도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는 모두 11개의 교육대학을 회원기관으로 하여 창립되었으며 활동기 중반에 5개 신설 교육대학이 합류하였으나 후발 5개 교육대학이 4년제 일반국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즉각적으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다시 11개 회원기관으로 환원되어 협력활동을 계속하였다. 회칙 제5조에는 교육대학에 재직하는 도서관장, 도서관학 교육담당 교직원, 회원기관 도서관에 속한 모든 사서를 회원의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단체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며 기관성격은 여타 협의회와는 달리 교육대학이라는 완전한 단일형태의 회원기관 양상을 띠고 있다.

3) 운영관리조직

회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회칙 제14조)고 되어 있으나 초기부터 창립주창기관인 공주교육대학이 회장역을 수임한 이래로 10년간을 계속 역임하였으며 회장기관의 사서로 지명되었던 간사도 공주교육대학의 서경모가 혼자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해 왔다. 부

회장은 윤번제로 내정하였으며 감사 2인 중 1인은 차기 부회장이 담당하여 회장에 대한 조언과 협조에 관한 임무를 맡아 왔다. 간사기관에서는 전반적인 도서관 인력난과 활동내용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보조직원없이 전문직 1인이 본연의 업무 과외로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협의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

회칙 제3장 제2절 임원회 항에는 총회가 결정한 일의 처리와 사업 계획과 예산안의 작성 그리고 실행한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을 기능으로 하는 의결 집행기구인 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임원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감사 2인 그리고 간사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사외에는 각 회원기관의 도서관장을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원회는 이사회의 형태로 운영된다. 11개 회원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이 임원을 배출하였으므로 회원기관의 운영위원회 참여 비율은 45%로서 매우 높다.

2) 총회

총회는 사업계획의 심의,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인준, 임원의 선출,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매년 5월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회원 10인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3) 재정

회칙 제5장에는 협의회 운영경비의 원천을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타 수입금이 없이 오직 회비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기록된 근거가 없는 관계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회원기관당 5,000원 정도의 연회비에 전체의 운영을 의존해 왔다고 당시의 간사는 증언하고 있다.

또한 본 협의회의 실무간사는 회원기관으로부터의 회비징수에 그다지 큰 애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본 협의회의 기록물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발굴된 자료인 『제6회(1970년) 정기총회 자료』에 수록된 의제중에서 회비징수 문제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감안하면 회비 징수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어느 정도는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협의회 사업 및 활동내역

1) 협력사업

회칙 제2장 제4조에 의하면『전국교육대학교서관협의회』는 전국에 산포되어 있는 교육대학의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교육대학의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도서관의 발전에 관한 일
- 회원의 상호협력에 관한 일
- 회원의 자질향상에 관한 일
- 교직원의 연구를 증진하는 일
- 학생의 면학을 증진하는 일
- 도서관의 상호간 간행물 및 정보교류에 관한 일
- 도서관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제휴에 관한 일

2) 교육훈련 및 출판활동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한 차례의 특강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활동의 전부일 뿐 그 밖의 교육훈련 실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출판물로는 간헐적으로 회원기관의 『직원명부』를 발간하였으며 각 회원기관의 논문자료의 소재정보를 알려 줄 수 있는 『전국교육대학논문목록색인』⁵⁾이 1회 발간되었다.

마.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 및 통신수단

본 협의회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직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 원거리 통신에 대한 실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이나 통신수단과 같은 협력수단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어렵다.

5) 서경모 편, 전국교육대학논문목록색인, 공주:공주교육대학교서관, 1972.

2.3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가. 연혁

1972년 4월 1일,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3개 대학의 사서들이 『전국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에 필적할 사립대학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도서관 상호협력기구를 설립하고자 박희영의 집에서 발기를 위한 예비모임을 가진 이래로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5개 대학이 2차에 걸쳐 발기준비회의를 갖고 1972년 7월 18일 총 16개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가 창립되었다. 또한 1973년 3월에는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후 협력활동을 계속하여 오늘과 같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협의회의 구성과 구조

1) 정관(회칙) 및 규정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의 설립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바 있는 1973년 3월 19일에 제정한 이래로 1994년 현재까지 모두 여섯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본 협의회의 회칙은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칙이외에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전산위원회 규정』이 1992년 1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년 퇴임자에 대한 표창규정인 전문 8조의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표창규정』, 이임하는 도서관장, 과장에 대한 치사와 격려를 목적으로 하는 표창규정인 『도서관장/과장에 대한 표창규정』등 2종의 표창규정이 있으며 1993년 5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회기준내규』가 있다.

본 내규에는 아래와 같은 7개항의 요구사항이 있으며 본 협의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시된 7개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시설규모 : 650평 이상인 도서관
2. 학생 총 정원 2,000명 이상인 도서관
3. 장서수 50,000권 이상인 도서관
4. 직원수(전문직) 5명 이상인 도서관

5. 대학교 설립후 5년 이상 경과된 도서관
6. 연간예산 8천만원 이상인 도서관
7. 단독건물이 있는 대학도서관

2) 회원기관

본 협의회는 회칙에 찬동하는 사립대학(교)도서관이 회원자격을 가지는(회칙 제5조) 본 협의회는 회원기관은 모두가 사립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 총 16개 사립대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1982년에는 27개 대학교, 1992년에는 51개 대학교, 1993년 말에는 각 회원기관의 분교 또는 지방캠퍼스를 독립회원으로 재등록한 상태에서 72개 대학교를 회원으로 확보함으로써 창립 당시 대비 350%, 과거 3년간 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3) 운영관리조직

본 협의회는 운영과 회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회는 1개 대표관, 3개 이사관, 1개 감사관으로 구성되어 각 기관의 도서관장이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임원관은 본 협의회에 가입한 순서에 따라 승계되며 같은 날자에 가입한 기관은 교명의 가나다순에 따르고 임원담당관은 감사관, 이사관, 이사관, 대표관, 이사관의 차례를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고 있다. 간사는 대표관의 중견 사서직원이 맡고 있으며 현재 간사기관에는 전일제 전담직원은 없고 전문직 사서 2명이 과외로 전체 회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협의회 운영

1) 운영위원회

회칙 제13조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 회장이 제안한 사항, 기타 중요한 회무를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명의 임원에 의해서 모든 회무가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72개 회원기관중에서 5개 기관만이 임원으로서 회무 결정에 참여하므로 회원기관의 운영위원회 참여비율은 7%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2) 총회

사업계획, 회칙 및 규정의 개폐, 예산, 결산, 임원회의 회무처리 보고, 임원개선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연1회 5월 이전에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재정

회칙 제15조(재정)에 의하면 본 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사업분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비에 대한 금액 수준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액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기준으로 책정된 회비는 회원기관의 차별없이 2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다.

〈표 2〉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의 연도별 세입·세출 내역
금액단위: 천원

항목별\연도별		1990년		1991년		1992년		3년간 평균	
세입	전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이월금	1,203	4.6%	12,561	42.6%	13,018	36.5%	8,927	29.3%
	회비	11,100	42.0%	11,200	38.0%	11,200	31.4%	11,167	36.6%
	사서연수회비	3,600	13.6%	1,580	5.4%	4,650	13.1%	3,277	10.7%
	세미나참가비	4,250	16.1%	1,950	6.6%	6,240	17.5%	4,147	13.6%
	출판물 판매대금	5,482	20.7%	1,349	4.6%	408	1.2%	2,413	7.9%
	잡수입	800	3.0%	837	2.8%	116	0.3%	584	1.9%
	계	26,435	100.0%	29,477	100.0%	35,632	100.0%	30,515	100.0%
세출	출판비	-	-	1,998	12.1%	2,780	11.2%	1,593	8.7%
	행사 및 교육훈련비	9,035	65.1%	8,653	52.6%	18,185	73.2%	11,958	65.0%
	회의비	3,509	25.3%	2,252	13.7%	1,958	7.9%	2,573	14.0%
	운영비	1,329	9.6%	2,656	16.1%	1,842	7.4%	1,942	10.5%
	인건비	-	-	-	-	-	-	-	-
	기타	-	-	900	5.5%	90	0.4%	330	1.8%
	계	13,873	100.0%	16,459	100.0%	24,855	100.0%	18,396	10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00%의 납부실적을 올리고 있는 회비 수입이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는 경우 과거 3년간 평균 세입의 52%이며 이월금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수입의 36.6% 인것은 수입원이 다양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월금이 3년간 평균 29.3%, 최대 42.6% 로서 협의회 활동상 소요되는 재정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라. 협의회 사업 및 활동내역

1) 협력사업

사립대학교 도서관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도서관원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립대학교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의 내역을 회칙 제4조에 명시하고 있다.

-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회, 세미나 및 연수회 개최
- 도서관 자료, 학술정보의 교환 및 상호협력의 증진
- 도서관원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
- 회보, 편람 등의 발행

2) 교육훈련 및 출판활동

본 협의회는 1981년 이후 세미나를 연1회 실시하였고 1986년 이후부터는 사서연수교육도 연1회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도서관현장을 견학하는 Field Trip 제도를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연 1회 실시하여 회원기관 소속원의 자질향상에 주력하였으나 1990년부터는 본 사업을 중단하였다.

1983년에는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DIRECTORY』를 발간하고 1989년 증보개편판을 발간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회원도서관의 현황표와 인명록이 수록된 『全國私立大學校 圖書館協議會 會員校便覽』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핵심 도구인 종합목록의 경우를 보면 1979년에는 18개 회원교에 국한된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을 발간하였으나 별로 활용되지는 못하였고 총 27개 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 7,908종이 수록된 증보판

이 1984년에 발행되어 회원기관간의 상호대차에 큰 몫을 하는 듯 했다. 또한 1982년 9월에는 『전국대학간행축차간행물목록』도 발행하여 회원기관의 사서들에게 현장 감각을 심어 주는 데 일조했다. 1990년에는 『도서관전산화자료집』을 발간하여 각 회원기관의 도서관전산화용 지침서로 제공했으며 1994년 1월 현재 개정증보판을 편집 완료하였다.

마.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 및 통신수단

사립대학교 도서관 중에는 일부 대학교 만이 현재의 교육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 모든 사립대학교가 교육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본 협의회는 차원에서 협력활동을 위한 전산망의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상중인 정도에 불과하다.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통신수단으로는 팩시밀리,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고 있다.

2.4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가. 연혁

신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실무자들에게 있어서 신학분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단합의 필요성이 표출되던 중 1972년에 이르러 침례교신학교와 전국신학대학협의회와의 협력하에 신학도서관간의 상호협력기구를 설립하고자 침례교신학대학 도서관장 허건을 중심으로 7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수차례 걸친 준비회합을 가진 끝에 1973년 3월 14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20여 신학도서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가 창립되었다.⁶⁾ 창립 이후 약 3년동안에는 의도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1976년 3월 26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재구성⁷⁾하기에 이르렀고, 1977년 3월 9일에는 제2차 정기총회가 개최됨으로써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비로소 제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나 아래의 <표 3>

6) 김영수, 한국신학교육도서관의 실태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p.56.

7) 김영수, *ibid.*, p.57

〈표 3〉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정기총회 개최 실적

차 순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 석 자
창 립	1973. 3. 14.	감리교신학대학	20개교 참석
제 2차	1977. 3. 9.	서울신학대학	참석자 관련 기록없음
제 6차	1984. 3. 29.	반도유스호스텔	13개교참석
제 7차	1984. 12. 20.	삼육대학	13개교참석(4개교위임)
제 8차	1985. 12. 5.	유성홍인장	13개교참석(2개교위임)
제 9차	1986. 12. 18.	요단기독교서적센터	12개교참석(5개교위임)
제10차	1987. 12. 1.	나사렛신학교	16개교참석
제11차	1988. 12. 14.	선교100주년기념관	15개교참석(3개교위임)
제12차	1989. 12. 16.	부산해운대한국콘도	14개교참석(4개교위임)
제13차	1991. 1. 25.	고신대학	30명참석
제14차	1991. 12. 6.	속리산관광호텔	참석자 관련 기록없음
제15차	1992. 12. 10.	유성경하장	참석자 관련 기록없음
임 시	1993. 4. 6.	대신대학교	참석자 관련 기록없음

을 보면 본 협의회의 행보가 순탄치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나. 협의회의 구성과 구조

1) 정관(회칙)및 규정

제정된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본 협의회의 회칙은 전문 7장 1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4년에 1차 개정되었다.

2) 회원기관

20개 신학도서관이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총 53개 기관으로 회원기관이 확대되었으나 창립 이후 21년간 165%에 불과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993년 말 전북신학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최근 3년간의 회원 성장률은 2%로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본 협의회의 회원의 자격과 종류로는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신학대학 및 각종 학교(신학교)도서관을 회원으로 하고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본 회에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임원회가 추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명예회원 등 2종의 회원이 있다. 회원기관의 성격은 1993년 말 기준으로 개신교 계열이 43개 기관, 가톨릭 계열이 6개 기관, 기타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운영관리조직

본 협의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사무국장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읍저버 등으로 구성되는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회원교의 학(교)장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신입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이때 부회장, 사무국장은 개인의 자격으로 하며 기타 임원은 회원기관을 대표한다.

본 협의회 결성 초기에는 사계의 저명인사 중심으로 임원이 구성되었다가 중반기 이후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중심으로 선출되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중반기 이후 임원의 보선이 빈번한 것을 보면 간사기관과 사무국장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모든 회무를 사무국장 혼자 맡아서 하고 있으며 잔무는 시간제 학생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다. 협의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

회칙 제16조에는 본 협의회의 회무를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평의회의 형태와 성격을 띤 운영위원회는 임원회로 칭하고 있으며 본 임원회는 회칙에 정해진 사항,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회칙의 변경 및 기타 총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말 현재 13명으로 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총 53개 회원기관중에서 본 협의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기관은 13개 기관으로서 회원기관의 운영위원회 참여 비율은 25%이다.

운영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회칙 제18조에는 자문위원회 설치조항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각 회원교의 학장 및 교계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총회

총회는 회칙에 정해진 모든 사항, 사업보고 및 계획의 심의, 예산결산의 심의, 회칙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회원교 중 5개교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22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표 4〉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연도별 세입·세출 내역

금액단위: 천원

항목별\연도별		1990년		1991년		1992년		3년간 평균	
세	전 년 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이 월 금	696	9.8%	478	5.6%	519	5.9%	564	6.9%
입	회 비	3,990	56.1%	5,010	58.7%	5,370	60.8%	4,790	58.7%
	등 록 비	1,565	22.0%	2,792	32.7%	2,930	33.2%	2,429	29.8%
	기타 수입	858	12.1%	250	3.0%	12	0.1%	373	4.6%
	계	7,109	100.0%	8,530	100%	8,831	100.0%	8,156	100.0%
세	출 판 비	882	13.3%	480	6.0%	806	9.4%	723	9.4%
	행사 및 교육훈련비	3,294	49.7%	4,100	51.2%	4,613	53.9%	4,002	51.7%
	회 의 비	222	3.3%	1,982	24.7%	272	3.2%	825	10.7%
	운 영 비	503	7.6%	620	7.7%	973	11.4%	699	9.0%
	인 건 비	1,730	26.1%	800	10.0%	1,900	22.2%	1,477	19.1%
	기 타	-	-	30	0.4%	-	-	10	0.1%
출		6,631	100.0%	8,012	100.0%	8,564	100.0%	7,736	100.0%

3) 재정

본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도서관협의회의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회칙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관협의회의 찬조금은 없고 일부 사업수익금과 회비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비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 신학대학과 신학교가 차별화 징수 정책에 따라 각각 25만원, 20만원을 납부 하고 있으나 과거 3년간의 평균 회비 납부실적이 67%⁸⁾로서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협의회는 과거 3년간의 재정수입에서 최대 60.8%, 최소 56.1%에 이르는 회비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3년간 평균으로 전체 활동의 58.7% 정도를 회비수입에 의존하는

8) a)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자료(1991-1992)-결산내역

b) 신학도서관 1:1(1993.11):29.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회비 납부실적이 67% 수준에 머무는 것은 협의회에의 존망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라. 협의회에의 사업 및 활동내역

1) 협력사업

전국의 신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여 신학연구 및 목회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학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주요 협력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회칙 제2장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 신학도서관 상호간의 문헌, 자료의 교환, 상호대차의 협력
- 신학도서관 상호간의 친목
- 신학도서관의 관리운영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 신학서지활동의 협력
- 신학도서관 직원의 자질향상과 지위향상
- 양서의 선정, 추천 및 보급
- 교회도서관의 육성지도
- 연구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

2) 교육훈련 및 출판활동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하계에는 순수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계에는 정기총회에 편승하여 개최하는 방법으로 연간 최저 2회, 최대 4회, 8년간 평균 3.4회에 이르는 많은 횟수의 교육훈련과 세미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는 연평균 1회로 교육훈련과 세미나 개최 횟수가 급속히 감소되었다.

1983년 이전의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으나 각 회원기관에 입수되는 종교분야 도서의 입수목록과 협의회에 관련된 각종 소식을 게재하는 기관지 성격의 출판물인 『신학문헌정보』가 발간되었다. 1983년에 발간된 제14호 부터 1990년의 제32호까지는 연간 2-3회 발간되었으나 1991년 이후 발행이 중지되었다.

1984년에는 『신학관계석·박사학위논문목록집』 1,000부를 발행한 후 1년 뒤에 증보판을 발행하였고 1988년에는 이 논문목록집의 발행을 나눔출판사에 위탁하여 발행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위탁 발

행하고 있다.

1986년에는 회원기관 상호간의 자료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외국신학 학술잡지종합목록』을 800부 발간하여 회원기관에 배포하였으며 1991년에는 그 내용을 대폭 갱신하여 발행하였으나 1992년에는 본 종합목록의 발행권을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사실상의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핵심사업인 종합목록의 발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신학문헌정보』의 발간과 병행하여 1983년에는 『신학도서관회보』가 창간되어 2년간 6회 발행된 후 중지되었으며 1987년에는 『출판문헌정보』 1~5집이 발간되었다가 1년도 채 경과하지 못하고 즉시 중지되는 등 일시 등장했다가 쉽게 사라지는 출판물이 많았다. 그 밖에도 일시 출판물로서 1982년 8월에는 『DDC 19판 200대』 번역판을 발행하였고 1989년에는 『DDC 20판 종교·음악분야』도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여타 도서관협의회에 비하여 많은 출판활동을 하였다.

1993년 말에는 모든 출판물의 출판 중지와 기관지의 소멸을 우려하여 『신학도서관』이라는 명칭의 회보를 창간함으로써 기관지의 소생을 시도한 바 있다.

마.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 및 통신수단

본 협의회의 회원기관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소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전산망의 활용과 같은 신기술개념이 도입되지 못했다. 현재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통신수단으로는 팩시밀리, 우편, 전화 등이 이용되고 있다.

2.5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가. 연혁

학문분야의 특수성에 따른 자료의 관리와 신속한 상호유통체제의 확립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가톨릭대학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우석대학 의과대학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의 실무책임자들은 의학도서관간의 상호협력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각 도서관의 외국의학잡지목록을 작성하여 교환함으로써 상호협력의 기초를 다듬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과정에서 정식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구성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당시 모국을 방문중이던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의 Oriental Area Specialist인 김승재(Stephen Kim)로부터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구성을 권고받고 강병식, 김종희, 윤영대, 현규섭 등이 발기인이 되어 1968년 6월 18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를 창립하고 이를 한국도서관협회에 등록함으로써 의학도서관간의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나. 협의회와 구성과 구조

1) 정관(회칙) 및 규정

1968년 6월 18일 제정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회칙은 전문 9장 2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된 이후 6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밖에도 『도서관자료 이용 및 상호대차 규약』, 『사무국 운영세칙』, 『의학잡지 복본 상호교환 내규』, 『포상규정』, 『지부 운영세칙』 등 기본 회칙외 5종의 운영규칙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서 협의회와 운영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2) 회원기관

창립 당시 5개 기관으로 시작된 본 협의회는 1993년 말 현재 134개의 회원기관을 확보함으로써 창립 이후 26년간 2,580%에 달하는 경이적인 회원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회원 : 의학교육기관, 병원, 의과학 연구기관의 도서관
- 개인회원 : 의학관계도서관에 근무하는 자
- 명예회원 : 본 협의회에 공헌이 있는 개인으로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찬조회원 : 본 협의회와 발전을 위한 사업에 찬조하는 개인 및 단체
- 특별회원 : 본 협의회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기관을 기관성격상으로 구분하면 의과대학 도서관 38, 병원도서관 80, 연구소도서관 8, 제약회사도서관 8 등이다.

3) 운영관리조직

본 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임원에는 회장, 약간명의 고문,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 13명, 감사 2명이 있다. 이러한 임원중에서 이사와 감사는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회장과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칙 제6장에는 회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무국 운영세칙』을 둬으로써 회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의 설치와 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제도를 공식화하고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출선하여 간사기관을 교대하여 맡아왔고 역대 사무국장이 협의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사무국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외 5명의 전문직이 종사하고 있으나 전담직원은 없고 모두 본연의 업무는 수행하면서 과외로 관여하고 있다.

다. 협의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각 회원기관의 중견 직원으로 구성된 평의회 형태와 성격을 가진 이사회로 칭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 13명 중에서 전무이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의 이사는 모두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사회는 회칙에 정해진 사항, 총회에서 의결한 심의·집행사항, 회칙의 변경안 및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기타 중요한 회무의 심의·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1993년 말 현재 134개 회원기관중에서 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16개 기관으로서 회원기관의 운영위원회 참여비율은 12%이다.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분야의 전문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5종의 전문, 또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회칙에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전산화위원회』, 『편집위원회』등 4개의 전문 또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개최 장소는 단체회원이 윤번제로 담당한다. 임시총회는 회장과 이사회 그리고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된다.

이러한 총회에서는 회칙에 정한 사항,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예산 결산의 승인, 회칙의 변경과 같은 회무가 의결된다.

3) 재정

회칙 제20조에는 본 협의회회 재정은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회비는 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20만원이며 과거 3년간의 회비 납부실적은 95%⁹⁾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9개의 특별회원이 회비와 광고로 찬조하고 있으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는 경우 회비가 총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간 평균 40% 수준이며 이월금을 포함하더라도 24.3%에 불과하다. 본 협의회회 가장 큰 수입원은 출판물 판매를 포함한 각종 사업 수입이 3년간 평균 세입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다양한 수입원의 개발로 말미암아 매우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1993년 말 기준으로 약 4,200만원의 누적된 자금은 본 협의회회의 활성화를 위한 원천이 되고 있다.

라. 협의회회의 사업 및 활동내역

1) 협력사업

전국의 의학도서관(병원도서관 포함)이 제휴하여 의학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학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의학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주요 협력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회칙 제2장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 회원도서관 상호간의 친목
- 회원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 회원도서관 상호간의 문헌자료의 교환, 보충의 협력, 복사의 알선

9) a)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25회 정기총회자료(1992.5), p. 13

b)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26회 정기총회자료(1993.5), p. 12

〈표 5〉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연도별 세입·세출 내역

금액단위 : 천원

항목별\연도별		1990년		1991년		1992년		3년간 평균	
세입	전 년 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이 월 금	27,044	48.2%	33,881	36.5%	33,207	36.2%	31,377	39.1%
	회 비 수 입	16,050	28.6%	18,000	19.4%	21,450	26.7%	19,500	24.3%
	색 인 지 판 매 수 입	8,700	15.5%	18,350	19.8%	16,760	18.3%	14,603	18.2%
	종 합 목 록 판 매 수 입	225	0.4%	15,800	17.0%	2,700	2.9%	6,242	7.8%
	광 고 수 입	300	0.5%	1,250	1.3%	1,550	1.7%	1,033	1.3%
	기 타 사 업 수 입	-	-	1,100	1.2%	10,176	11.1%	3,759	4.7%
	잡 수 입	3,810	6.8%	4,416	4.8%	2,871	3.1%	3,699	4.6%
계		56,129	100.0%	92,797	100.0%	91,714	100.0%	80,213	100.0%
세출	출 판 비	7,680	34.5%	34,351	60.5%	26,013	52.5%	22,681	52.9%
	행사 및 교육훈련비	3,514	15.8%	7,971	14.1%	5,082	10.2%	5,522	12.9%
	회 의 비	2,953	13.3%	4,166	7.3%	4,982	10.0%	4,034	9.4%
	운 영 비	4,191	18.8%	5,284	9.3%	6,144	12.4%	5,206	12.2%
	인 건 비	3,550	16.0%	4,966	8.8%	5,295	10.7%	4,604	10.7%
	기 타	360	1.6%	-	-	2,070	4.2%	810	1.9%
계		22,248	100.0%	56,738	100.0%	49,586	100.0%	42,857	100.0%

-상호대차의 협력

-회원도서관 직원의 육성 및 자질향상

-연구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유대 및 협조

2) 교육훈련 및 출판활동

교육훈련으로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가 있고 부정기적으로 의학용어강좌, 의학도서관 실무워크샵이 있다. 부정기 교육훈련에서는 Index Medicus 사용법, 분류표 (DDC, KDC, NLMC)사

용법, Excerpta Medica 사용법, Korea Index Medicus 사용법 등의 주제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출판활동이 매우 왕성하여 많은 출판물을 발간한 바 있다. 우선 기관지 역할을 하는 『한국의학도서관』은 1976년 이후 연간 1~2회 발행되었는데 본 기관지에는 회원들의 연구 논문을 수록하여 의학도서관 사서들의 자질향상과 교육을 위해 일조를 해 왔으며, 국내 의학잡지에 수록된 연구논문들을 주제나 저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의학문헌 색인지인 『Korean Index Medicus』는 1986년 이후 총 5회 발행되었다. 회원기관의 모든 현황을 수록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현황』은 197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醫學關係雜誌綜合目錄』을 발간하였다. 1968년에 발행한 초판에는 가톨릭의대,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이화여대 의과대학 등 5개 대학의 소장자료가 수록되었으며 계속적으로 개정, 증보되다가 최근에 발간된 1991년판(개정8판)은 110개 회원기관의 소장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그 밖에 『Audio-Visual 기자재 종합목록(1986)』, 『정기간행물의 관리(1988)』, 『의학정보검색(1989)』, 『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 20年史(1990)』 등이 출판되었다.

마.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 및 통신수단

본 협회의 회원기관은 인력, 장서, 환경면에서 편차가 매우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차가 큰 집단은 중심이 되는 큰 기관의 활동역량에 따라 환경은 쉽게 바뀔 수가 있다. 현재로는 협력기관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지만 구상중에 있고 전산망의 이용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환경변화에 따라 연동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협회내 회원기관간의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통신수단은 팩시밀리와 우편, 전화 등이 이용되고 있다.

2.6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가. 연혁

1979년 11월 30일, 전문 및 연구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발전을 위하

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사서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박계홍을 중심으로 한 관계 전문사서들이 발기하여 본 협회회의 창립을 결의하였으며, 1980년 4월 9일에는 한국도서관협회 정관 34조에 근거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문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성격을 가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는 1985년 4월의 전문가초청강연회 사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협력활동이 없던 중에 1986년 10월 전국도서관대회에 맞추어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삼고 협회회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성과없이 끝난 이후 지금에 이르러서는 모든 활동이 완전히 중지된 상태에 있다.

나. 협회회의 구성과 구조

1) 정관(회칙) 및 규정

전문 9장 33조로 구성된 본 협회회의 정관은 1980년 4월 9일자로 효력을 발한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활동영역의 확장과 활동규범의 강화를 위한 별도의 규칙은 없다.

2) 회원기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단체회원 : 도협회원으로서 정부기관, 공공단체, 학술단체, 사업체 등에서 설치한 전문도서관 및 전문정보센터

-개인회원 : 도협회원으로서 전문도서관 및 전문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정사서, 정보전문가, 주제전문가와 도서관학 및 정보학 교수

-찬조회원 : 본 협회회의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명예회원 : 본 협회회의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창립 첫해인 1980년에는 단체 14개 기관, 개인 28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85년에는 단체회원이 25개 기관으로 증가되어 5년간 7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최종 3년간(1983~1985)의 성장률은 40%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회원증가율을 기록했다.

본 협회회의에 소속한 회원의 성격을 보면 창립 초기의 14개 기관은

모두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그중 9개 기관이 과학기술분야, 5개 기관이 경제사회분야로 구성되었으며, 1985년도를 기준한 25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이고 6개 기관이 민간연구소 또는 기업체 자료실등의 기타 기관이었으며, 분야별로는 과학기술분야 12개 기관, 경제사회분야 9개 기관, 기타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운영관리조직

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는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2명, 약간명의 고문을 두며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고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이와 같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감사는 2년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기관의 소재지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비전일제 전문직 사무국장 1인이 회무를 총괄하였다.

창립 당시 발기인 중심으로 회장기관과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짐에 따라 협의회 활동 참여 비중이 점차 감소되었다.

다. 협의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

본 협의회의 업무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회원기관의 정보관리부서장 또는 중견 직원과 개인회원 중 도서관학 또는 정보학 교수로 구성되는 평의회의 형태와 성격으로서 이사회로 칭하고 있으며 본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사회는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운영, 예산·결산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회칙에 규정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본 협의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1980년 이후 3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회무를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는 9개의 회원기관이 참여하여 전체 17개 회원기관의 운영위원회 참여비율은 53%로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그 밖에도 본 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협의회에

개설된 전문 또는 실행위원회로는 『전문직발전분과위원회』, 『연구출판분과위원회』, 『자동화분과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기준분과위원회』, 『정보서비스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2) 총회

총회는 년 1회 1/4분기 중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요할 때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이러한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출,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결산의 승인 등에 대하여 의결한다.

3) 재정

정관 제24조(재정)에는 본 협의회의 재정을 회원의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차

<표 6>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의 연도별 세입·세출 내역

금액단위: 천원

항목별\연도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세입	단체회원회비	700	66.1%	850	59.8%	650	35.2%	550	74.2%	100	15.0%
	개인회원회비	84	7.9%	63	4.4%	69	3.7%	21	2.8%	-	-
	세미나 및 워크샵 참가비	275	26.0%	-	-	680	36.7%	-	-	-	-
	전년도 이월	-	-	509	35.8%	449	24.3%	170	23.0%	568	85.0%
	계	1,059	100.0%	1,422	100.0%	1,848	100.0%	741	100.0%	668	100.0%
세출	출판비	45	11.5%	865	88.9%	882	52.6%	-	-	-	-
	행사및 교육훈련비	220	56.4%	-	-	160	9.5%	-	-	-	-
	회의비	125	32.0%	80	8.2%	519	30.9%	106	61.3%	-	-
	운영비	-	-	28	2.9%	117	7.0%	67	38.7%	-	-
	인건비	-	-	-	-	-	-	-	-	-	-
	기타	-	-	-	-	-	-	-	-	-	-
	계	390	100.0%	973	100.0%	1,678	100.0%	173	100.0%	-	-

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이월금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최저 51%에서 최고 100%이며 이월금을 포함하더라도 5년간 평균으로 회비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8%로서 운영을 위한 재원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는 회원의 종류를 단체회원, 개인회원, 찬조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하여 세수입원을 다원화하였으나 회원기관의 회비납부 실적은 3년간 평균으로 32%¹⁰⁾에 불과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틀림없다.

라. 협의회의 사업 및 활동내역

1) 협력사업

전문도서관과 전문정보센터의 발전과 전문사서의 자질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의 주요 협력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회칙 제1장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 전문도서관 및 전문정보센터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출판
- 전문도서관 및 전문정보센터간의 정보교류 및 기타 협력
- 전문사서의 자질 향상
- 전문사서 신분의 향상
- 연구발표회, 세미나, 강습회 등의 개최
- 국내외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조 연락

2) 교육훈련 및 출판활동

본 협의회는 창립 첫해에 매우 의욕적으로 활동하여 1년 동안 1회의 워크숍, 1회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그 이듬 해에는 무산되었으며 1982년에 1회의 워크숍을 개최한 이후 1985년의 전문가 초청강연 1회를 끝으로 더 이상의 교육훈련활동은 없었다.

본 협의회의 기관지로서 회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발간한 『韓國專門圖書館研究』는 1981년 10월에 창간되었다가 1983년 3월에 제2집 발간을 끝으로 중단되었으며 협의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회원에게 전파시킬 목적으로 발간되는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뉴스』도

10)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3년간(1980년-1982년)의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음.

1980년에 2회, 1981년에 1회, 1982년에 1회 등 총 4회 발간에 그쳤고 『한국연구소총람』과 『회원명부』 등 계획되었던 출판물은 끝내 간행되지 못했다.

마.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 및 통신수단

본 협의회가 창립되어서 활동을 중지할 때까지의 1980년대 상반기는 한국적 상황으로 보면 컴퓨터 도입기로서 당시의 환경으로는 자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협의회 회원기관이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구상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컴퓨터간의 통신도 이기종 통신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전산망의 구축이나 활용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을 시점이며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통신수단도 팩시밀리가 아닌 우편, 전화 수준에 불과했다.

2.7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가. 연혁

197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원,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연구소 도서관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상호간에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여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추진하고자 『서울연구개발단지도서관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발족시켰다. 본 협의회는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필수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을 발간하고 이를 매체로 한 도서관상호대차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자료협력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도서관을 주축으로 형성된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인 『서울연구개발단지도서관실무자협의회』는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충남 대덕과 경남 창원에 새로운 연구소가 다수 설립되고 많은 수의 서울지역 연구소가 대덕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서울”이라는 지역명칭의 삭제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협의회 명칭을 『연구개발단지도서관(실무자)협의회』로 개칭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 협의회는 17개의 회원기관을 가진 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 급성장하게 되었

다. 또한 1982년에는 당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발족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와의 통합문제가 정기총회 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쌍방에 모두 유익하다”는 회원기관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으며, 명칭도 『연구단지도서관실무자협의회』로 개칭되었다. 1985년에는 협의회 명칭의 잦은 개칭에 따른 혼선으로 『연구단지정보관리실무자협의회』로도 호칭되었으나 1985년 10월의 총회 결의에 따라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로 정식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변경된 본 협의회는 현재 명칭도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현재의 서류와 회원기관의 성격에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회원확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회원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에 관한 개선방안의 연구가 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중에 있다.

나. 협의회와 구성과 구조

1) 정관(회칙) 및 규정

전문 9장 3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본 협의회는 회칙은 1979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4회 개정되었다. 또한 본 협의회는 중점사업인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6개항에 이르는 『자료상호대차제도요령』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회원기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에 자기 기관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본 협의회에 활동에 참가하는 기관을 정회원으로, 본 협의회 활동에만 참가하는 기관을 준회원으로 승인하는 회원 이원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정회원만이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창립 당시 6개 회원기관에 불과하던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는 1980년도 정부출연연구소의 신규 설립과 더불어 17개의 회원기관을 가진 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 급성장하였으며 1986년의 22개 기관 당시에는 대부분의 회원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었으나 그 이후 다수의 민간연구소가 가입하여 현재 3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 당시에 대비한 회원성장률은 500%이고 과거 3년간의 성장률은 20%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또한 회원기관을 성격별로 보면 창립 당시는 모두 정부출연연구기관이었으나 현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기관, 민간연구소 5개 기관, 사립대학교 1개교, 국영기업체 연구기관 4개 기관, 기타 법인체 1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운영관리조직

본 협회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회장은 1인, 감사 1인, 총무 1인, 간사 6인 이내로 하며 본 협회회의 사업을 주관하는 간사기관은 정회원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출한다. 회칙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총회에서 간사기관을 선출하지만 중반기부터는 규모가 비교적 크고 안정된 기관이 출선하여 간사기관을 일차 역임한 후에 이들 기관들이 윤번제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간사기관에는 협회회의 회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 전문직 2명이 본연의 업무 과외로 담당하고 있다.

다. 협회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

간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회원기관의 정보관리부서장을 임원의 자격으로 정하여 선발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총무를 제외하고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회로 칭하는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형태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업무와 총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의결권한을 갖는다.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회원기관의 참여비율은 총 36개 회원기관중 8개 기관이 참여하므로 22% 선에 이른다.

『연구단지정보관리협회』에서는 본 협회회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해 온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계기로 전문위원회 성격의 『기술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본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위원은 1) 공동활용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표준안과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2) 기술정보사업추진시 회원기관간 중복연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기술검토를 하고, 3) 중장기 사업계획 및 발전방향의 제시, 4) 기타 임원회에서 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들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1년 임기를 원칙으로 하고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총회

매년 6월 임원의 선출, 회칙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심의 등을 의결하는 정기총회가 있으며, 그밖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재정

회칙 제22조에는 본 협의회는 운영은 연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는 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장서종합목록 발간사업에 의한 회원기관 분담금만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목록 분담금이 전체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5.2%, 최고 65.1%이지만,

<표 7>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의 연도별 세입·세출 내역

금액단위 : 천원

항목별\연도별		1990년		1991년		1992년		3년간 평균	
세	전 년 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이 월 금	7,121	78.2%	5,105	26.7%	8,935	87.1%	7,054	55.0%
입	행사 참석비	590	6.5%	525	2.8%	900	8.8%	672	5.2%
	종합목록 분담금	472	5.2%	12,450	65.1%	-	-	4,307	33.6%
	찬 조 금	900	9.9%	1,000	5.2%	400	3.9%	767	6.0%
	잡 수 입	15	0.2%	35	0.2%	25	0.2%	25	0.2%
	계	9,098	100.0%	19,115	100.0%	10,260	100.0%	12,825	100.0%
세	출 판 비	150	3.8%	4,333	42.6%	-	-	1,494	25.8%
	행사 및 교육훈련비	1,894	47.1%	2,976	29.2%	1,955	61.1%	2,275	39.2%
	회 의 비	1,568	39.9%	2,386	23.4%	1,125	35.2%	1,693	29.2%
	운 영 비	407	10.1%	484	4.8%	120	3.7%	337	5.8%
	인 건 비	-	-	-	-	-	-	-	-
출	기 타	-	-	-	-	-	-	-	-
	계	4,019	100.0%	10,179	100.0%	3,200	100.0%	5,799	100.0%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 지며 1992년에는 종합목록 분담금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평균으로 3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이후와 같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하여 책자형 종합목록을 발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의회가 존립을 위해서 회비징수정책의 시행을 포함한 다른 수입원을 개발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다.

라. 협의회와 사업 및 활동내역

1) 협력사업

회칙 제4조에 의하면 연구기관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단지정보관리협회』는 회원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 정보교환, 정보관리,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관리업무 및 소속기관의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장서종합목록 및 관련 제사업
- 상호대차제도의 운용
- 정보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 기타 본 협의회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교육훈련 및 출판활동

부정기적이지만 연평균 2회 정도의 세미나를 통하여 회원기관 소속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데 1993년의 전거시스템 세미나, 1992년의 러시아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1991년의 ISBD 세미나 등이 대표적이다.

본 협의회는 자료의 상호대차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창립 첫해부터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서양서 편-』을 발간한 이래로 1989년까지 거의 매년(총 16회) 발행하였고 1991년에는 전15권 1질에 달하는 누적본을 발행하였으며 1994년 현재 보유판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92년에는 전체 회원기관의 현황을 기술하고 이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단지정보관리총람』을 발행하였다.

마.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 및 통신수단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는 여타의 도서관협의회보다 컴퓨터와 원거리통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이 주관이 되어 구축하고 있는 『과학기술도서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에는 회원기관 모두의 데이터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입력되고 있으며 1993년 말 기준으로 247,486개의 소재정보(178,797개의 고유 서지레코드)¹¹⁾가 입력되어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한 8개의 회원기관은 온라인으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일부 기관간에는 연구전산망과 국제전산망(Internet)을 이용하여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공할 자료의 원문송부를 위한 통신수단으로는 우편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긴급한 요청일 경우에는 팩시밀리의 이용도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다.

2.8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가. 연혁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도 광범위한 수용범주로 하여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도서관상호협력기구를 구성하였던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의 활동 부진과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의 활동에 자극된 사회과학분야의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직업훈련연구원, 통신개발연구원,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을 중심으로 1989년 12월까지 자료실 상호간에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유네스코의 아·태지역 사회과학자문관실이 주축이 되어 1986년에 태동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과학정보네트워크¹²⁾와 연계 발전시키자는 유네

11)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도서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III), 대전: 연구개발정보센터, 1993, p. 4.

12) APINESS (Asia-Pacific Information Network in Social Sciences): 국가단위의 폐쇄적인 정보 고립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장치로서 국가상호간 사회과학분야의 정보교환, 정보 자료의 교환, 다큐멘테이션 기법과 표준화, 정보의 온라인 접근을 위한 공동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간 통신망의 연결, 교육, 훈련, 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한 국가간의 전문인력과 첨단기술, 그리고 경험을 나누기 위한 공동협력체

스코의 권고를 받아 들이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간사가 되어서 1990년 1월 30일에 발기총회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사회과학분야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가 발족 되었다.

나. 협의회 구성과 구조

1) 정관(회칙) 및 규정

1990년 1월 30일부로 제정된 본 협의회 정관은 전문 6장 1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상 명시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배경으로서 전문 11조 부칙으로 구성된 『자료상호대차협약규정』이 있다.

2) 회원기관

본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사회과학관련 정보자료기관, 연구기관, 학회, 그리고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1990년에 24개 기관이 회원기관으로 가입되었으며 1993년 말 기준으로 33개 기관의 회원을 확보함으로써 창립 이후 3년만에 38%의 높은 회원기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기관의 성격을 보면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10개 공익법인, 3개 금융기관, 2개 민간연구소, 1개 대학연구소, 기타 3개 기관등이며 모두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3) 운영관리조직

본 협의회 운영의 주체가 되는 임원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5인 이내의 이사,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다. 이러한 임원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당해년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무국으로 지정된 회원기관에서 맡으며 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이다. 현재 회무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의 인력으로 전일제 전문직은 없으며 사무국을 맡고 있는 회원기관 자체의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협의회 운영

1)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각 기관의 정보관리부

서장을 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정했기 때문에 본 협의회 이사회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업무 및 총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1993년 현재 9개 기관의 정보관리부서장이 임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므로 회원기관의 운영위원회 참여비율은 27%에 이른다.

2) 총회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심의, 그 밖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필요로 하는 때에 개최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3) 재정

회칙 제26조(운영)에는 본 협의회 운영은 연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회비는 1993년 기준으로 기관회원 7만

〈표 8〉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연도별 세입·세출 내역

금액단위 : 천원

항목별\연도별		1991년		1992년		1993년		3년간 평균	
세입	전년도 이월금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805	44.5%	916	34.1%	809	23.1%	843	31.6%
	회 비	1,000	55.3%	1,270	47.2%	2,188	62.4%	1,486	55.7%
	잠수입	4	0.2%	502	18.7%	508	14.5%	338	12.7%
	계	1,809	100.0%	2,688	100.0%	3,505	100.0%	2,667	100.0%
세출	출판비	-	-	600	31.9%	-	-	200	15.2%
	행사 및 교육훈련비	425	47.6%	800	42.6%	761	65.4%	662	50.5%
	회의비	192	21.5%	409	21.8%	232	20%	278	21.2%
	운영비	276	30.9%	70	3.7%	170	14.6%	172	13.1%
	인건비	-	-	-	-	-	-	-	-
	기타	-	-	-	-	-	-	-	-
계		893	100.0%	1,879	100.0%	1,163	100.0%	1,312	100.0%

원, 개인회원 2만원이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회비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72%, 최대 99.5%이고, 이월금을 포함하더라도 최소 47.2%, 최대 62.4%이며 3년간 평균 55.7%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 협의회의 사업 및 활동내역

1) 협력사업

회원기관간의 업무협조, 정보교환, 정보관리,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회원의 발전과 한국사회과학의 발전 및 국제교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과학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의 협력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회과학관련 정보자료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
- 상호대차제도의 운영
- 정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상호자문
- 사회과학 정보자료 수집 및 교류에 관한 조사, 연구, 출판활동
- 사회과학관련 정보자료 목록 발행
-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교육훈련 및 출판활동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추계세미나와 부정기 세미나를 통하여 회원기관 소속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기관지 수준의 출판물은 없으나 1994년 1월에 본 협의회의 현황과 회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요람』을 발간하였다.

1991년 12월에는 회원기관 상호간의 자료교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필수도구인 종합목록으로서『外國學術雜誌 綜合目錄』을 발간하였다.

마.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 및 통신수단

현재 본 협의회의 회원기관은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계획에서 취합하기가 어렵다. 각 기관의

개별적인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전산망의 진척정도에 따라 본 협의회의 협력활동을 위한 전산망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공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지 않았으며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회원기관간의 통신수단으로는 팩시밀리, 전화, 방문 등을 이용하고 있다.

2.9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가. 연혁

수도권의 타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소재 대학의 도서관환경이 대학교육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러한 빈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상호협력활동만이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음을 인정한 지방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지역내의 동일 관종간 도서관 상호협력기구의 설립을 구상하게 되었다.

충남대학교를 비롯한 11개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은 1991년 1월 11일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지역사회의 동종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부족한 도서관자료의 상호이용과 도서관운영의 개선을 지향함으로써 단위도서관의 발전과 이용자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 충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나. 협의회 구성과 구조

1) 정관(회칙) 및 규정

1991년 1월 11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일자부터 시행된 전문 12조, 부칙으로된 회칙과 협력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배경이 되는 『자료 상호이용규약』이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회원기관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의 도서관을 회원의 자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1993년말 기준으로 16개 대학을 회원으로 확보하여 3년간에 45%의 회원기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회원기관의 성격으로는 국립대학이 4개교, 사립대학이 12개교이며,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전지역이 7개교, 충남지역이 9개교이다.

3) 운영관리조직

협의회의 운영을 맡게 되는 임원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약간명, 감사 1인 등이 있으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이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회장으로 선임된 기관에서 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기관의 전담운영 인력은 전일제가 아닌 전문직 1인이 담당하고 있다.

다. 협의회의 운영

1)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회가 본 협의회의 운영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 임원회의 구성원이 모두 회원기관의 도서관장이므로 이사회의 형태와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 협의회의 중요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회원기관의 도서관장 5명으로 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원기관의 운영위원회 참여율은 31% 수준이다.

2) 총회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수시 필요에 의한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시에는 회칙의 개정, 임원 개선, 감사 결과보고 및 결산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임원회의 위임사항, 회비액의 결정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 재정

회칙 제12조(경비)에는 본 회의 운영재원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를 1993년 말 기준으로 회원기관당 10만원 규모의 회비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라. 협의회의 사업 및 활동내역

1) 협력사업

도서관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협력하여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의 운영개선과 사서업무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교육과 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협력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회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 도서관운영개선에 관한 공동연구
-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학에 관한 세미나 개최
-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간행물 출판
- 도서관원의 자질향상에 관한 연수

2) 교육훈련 및 출판활동

1992년도 정기총회에 맞추어서 회원기관의 인명부가 포함된 기관지 성격의 회보로 『大學圖書館協議會消息』을 1회 발간하였으며,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근간이 되는 종합목록의 경우는 가칭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발간을 위한 실무위원회만 구성되었을 뿐 1993년 말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았다.

마.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수준 및 통신수단

회원기관의 성격이 이원화 즉,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단일 전산망 활용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전산망계획에 따를 경우 결코 먼 것만은 아니다. 공용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며 향후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을 책자형으로 발간한 이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통신수단은 우편이 보편적이며 요구자의 요청에 따라 팩시밀리도 사용하고 있다.

3. 도서관상호협력활동 현황

본 장에서는 각각의 도서관협의회에서 수행한 바 있는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활동배경, 협력실적, 협력활동을 주관하는 조직구조, 협력활동 지원규정, 이용요금지불제도 등을 조사하였다.

3.1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술한 바와 같이 1981년도까지의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도서관상호협력기구라기 보다는 회원간의 친목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의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

에 도서관상호협력활동에 관한 실적을 찾아 볼 수 없다.

1982년에 이르러 일부 회원기관간의 상호이용요청으로 비롯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은 1982년¹³⁾ 한해 동안 경북대학교가 타 회원기관으로부터 접수 받은 것이 380건, 타 회원기관으로 의뢰한 것이 980건, 서울대학교가 접수 484건, 의뢰 552건, 목포대학은 접수 5건, 의뢰 15건에 불과하였으나 10년이 지난 1992년도¹⁴⁾에는 총 접수건수 18,395건, 의뢰건수 17,930건으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것은 본 협의회가 창립된 이래로 많은 차수의 이사회와 총회를 거치는 동안 상호대차 문제와 상호협력활동 등 광범위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강화를 계속 논의한 데 따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협의회 회칙 제12조에는 도서관상호협력활동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의한 조항이 없다. 다만 도서관자료의 교환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1990년 8월 14일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제정된 전문 11조의 『도서관자료상호이용규칙』으로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적인 배경을 튼튼히 하였고,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전담하는 실행위원회로서 『상호이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회원기관의 실무 책임자급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협력활동의 추진은 물론 자료를 상호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상호협력활동에 따른 이용요금의 지불제도는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즉, 원문정보를 복사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에서 규정한 예산회계법에 따라 특별한 수익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요금은 제공해 주는 회원기관의 실비 요금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요금지불방식으로는 채신소액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3.2 전국교육대학도서관협의회

본 협의회는 회원기관간의 도서관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배경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회칙 제4조(사업) 6항에서 도

13) 國立大學圖書館報 第一輯, 서울: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1983, p. 69

14) 國立大學圖書館報 第十一輯, 대구: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1993, p.

서관 상호간의 간행물 및 정보교류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단행본이나 학술잡지소장내역을 수록한 종합목록은 아니지만 본 협의회의 회원기관에게는 꼭 필요했던 논문자료에 대한 종합목록인 『전국교육대학논문목록색인』을 1회 발간하여 회원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한정된 분야의 자료에 대한 소재정보파악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협의회의 회원기관간 협력실적은 간사기관의 통계자료 미처리로 말미암아 산출할 수 없다.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실행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이용요금지불제도도 확립되지 않았다.

3.3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본 협의회의 회칙 제4조 3항에 의하면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위한 항목으로 도서관 자료, 학술정보의 교환 및 상호협력의 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밖에는 협력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배경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현재 일부 회원기관간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상호대차나 원문 정보복사제공과 같은 형태의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협의회가 주축이 된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은 결코 아니다. 또한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촉진하는 별도의 지원규정이나 지원제도는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사실이 없으며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실행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18개 회원기관에 국한되었지만 자료상호이용협력을 목적으로 『외국 학술잡지종합목록』이 1979년에 발간되었으므로 그때쯤 상호이용협력이 최초로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에 관한 역사자료나 협력실적에 대한 기록이 없다.

3.4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칙 제4조에 있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사업내용 중 제1항에는 신학도서관 상호간의 문헌, 자료의 교환, 상호대차의 협력을 명시

하고 있으나 그 밖에는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위한 별도의 협력활동 지원규정이 없다.

신학도서관간의 도서관 상호협력활동 수준은 부분적 원문정보제공 수준에 불과하고 협력실적 또한 회원기관 각각의 통계자료 미확보로 말미암아 산출할 수 없다.

본 협의회는 상호협력활동을 주관하는 실행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물론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

본 협의회는 회원기관 구성원의 협력요구를 모두 다 수용하지 않고 교수의 이용요구만 수용하되 이용요금을 일체 징수하지 않고 제공기관이 부담해 주므로 이용요금지불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도서관 상호협력활동과는 그 범주를 달리하고 있는 분야지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타 도서관협의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협력활동을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즉, 1983년에 공동수서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구팀을 만들고, 1984년에는 삼육대학, 서울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 호남신학교 등 4개교의 회원기관이 1,889,115원의 예산으로 173권의 도서를 공동으로 구입하였던 사례가 있고, 1985년도에는 카드 복사기 공동구입 활용문제를 토의함으로써 실행은 되지 못했지만 도서관 상호협력기구의 광범위 협력활동영역중의 하나인 장비공동활용협력을 시도한 사실은 도서관 상호협력기구의 협력활동에 대한 영역 확대를 시도했다는 사실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5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창립 이전부터 가톨릭대학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우석대학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등 5개 의과대학도서관이 도서관자료의 상호이용을 위하여 각 도서관의 외국의학잡지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교환하여 활용하고 있던 중에 정식으로 도서관 상호협력기구를 창립하였기 때문에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수준이 매우 높다.

회칙 제3조를 배경으로 수행되고 있는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은 본 협의회는 협력사업으로 명시된 전체 7개 항목중에서 2개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본 협의회는 전체 활동 중에서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도서관 상호협력활동 수준은 자료의 원문정보복사제공을 근간으로 하고 단행본의 상호대차까지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이다.

본 협의회는 각 기관간 상호대차 통계자료는 개별 회원기관의 미작성과 사무국의 자료 미확보로 말미암아 정확한 실적을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1991년에 한상철, 이인순의 연구¹⁵⁾로 조사된 199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상호대차 통계를 보면 69개 기관이 응답한 상호회의 건수는 38,700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 협의회는 회칙은 물론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창립 첫해부터 『도서관자료이용 및 상호대차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회원기관간의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순수하게 도서관 상호협력활동만을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본 협의회는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실행위원회인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사무국의 업무처리내역을 제어, 통제하는 역할을 일부 담당케 하고 있다.

자료의 공동활용을 권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이용요금을 단일화 -1건 10매 복사 기준으로 700원 -하여 제공기관의 작은 이익을 보장하였고, 체신 소액환 700원권으로 통일하여 쿠폰화 함으로써 더욱 편리한 요금정산 방법을 택하는 등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배경을 공고히 다져 두고 있다.

자료교환분야에서도 1974년에 『의학잡지 복본 상호교환 내규』를 제정하고, 1981년에는 중복잡지교환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회원기관간 상호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Audio-Visual 기자재 종합목록』을 발간함으로써 도서관간 상호협력에 관한 또 다른 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한 바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의학관계 자료의 빈곤성을 극복하고자 외국의 도서관 상호협력기구와 상호이용협정을 체결하여 회원기관의

15) 한상철, 이인순, “국내의학도서관 상호대차업무 현황 및 분석-자료복사 업무를중심으로-”, 『한국의학도서관』 18 : 1-2(1991. 12) : 53-62.

연구정보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1991년 6월 15일에는 『일본의 학도서관협의회』와 공식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일본의 학도서관협의회』 소속의 46개 회원기관이 본 협력사업에 호응하고 있다. 협정을 체결한 1991년 이래로 1993년 말까지 『일본의 학도서관협의회』가 『한국의 학도서관협의회』에 문헌정보를 제공해 준 실적¹⁶⁾을 보면 1991년에 920건, 1992년에 1,540건, 1993년에는 1,850건으로 3년간 총 4,310건이며 『한국의 학도서관협의회』에서 『일본의 학도서관협의회』에 제공해 준 실적은 1건도 없기 때문에 양국의 의학도서관 상호협력기구간 국제협력활동은 상호협력이라기 보다는 일방적 의존형 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93년 8월 17일에는 『중국의약학대학도서관협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협력분야를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국제협력의 경우에는 본 협의회 회원기관이 직접 상대국의 도서관 상호협력기구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에 소장된 자료가 필요한 회원기관은 간사기관으로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간사기관에서 문헌정보 입수처리업무를 대행해 주는 창구 일원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3.6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다만 정관 제4조 2항의 협력사업으로만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서에는 매년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중요성과 상호대차제도의 실시 계획을 언급해 왔다. 즉, 1980년에는 전문도서관간의 자료 상호대차제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도서관의 계열별 장서종합목록을 작성하고 정기간행물종합목록 발간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1981년에는 2차에 걸친 이사회에서 회원 상호간의 자료이용 방안을 토의한 후 전문도서관간의 자료 상호대차의 확대실행을 결의하였으며, 1982년 3월의 제3차 정기총회에서도 전문도서관간의 상호대차제도 확대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문도서관간의 상호자료이용의 매체가 되는 종합목록의 발간과 제도 확립을 계획하고 발표하였으나 일부 기관간

16) 1994년 2월 19일자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연구자에게 팩시밀리로 발송된 문헌복사실적에 근거하였음.

에서 있었던 소규모 자료상호이용협력(당시 사무국장 중언)이외는 본 협의회가 사업보고서나 간행물 어디에서도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지원규정이나 주관하는 조직구조 그리고 협력실적을 찾아 볼 수 없다.

3.7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회칙 제4조에 명시된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의 협력사업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항목이 도서관상호협력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본 협의회 전체 활동에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홍릉에 소재한 서울연구개발단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도서실간 상호이용협력에서 비롯된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의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은 1970년대의 후반부터 시작된 다수 연구소의 대덕연구단지 이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회원기관들이 지역적으로 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영향도 있지만 유사 주제분야의 연구소가 주축이 되었던 본 협의회 특성상 따라 협력활동이 비교적 용이하고 원만하게 진행된 것이다.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의 회칙에는 제7장에 자료상호대차제도를 8개 조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료상호대차제도 요령』으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배경을 공고히 해 놓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실시된 상호대차 실적은 1993년 1년간의 실적¹⁷⁾을 기준으로 단행본의 상호대차실적은 1,910건, 원문복사제공 협력실적은 17,261건에 이른다.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는 본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 정책개발을 위하여 상설기구로서 『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목록정보의 공동이용을 주된 과제로 공동이용표준안을 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각종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실행케 하기 때문에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실행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실행위원회라고 간주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력활동을 제어, 통제하고 있

17) 연정협 제94-1호(1994. 1. 10) 회원기관 인감갱신 및 상호대차실적통보 요청 공문에 의하여 취합된 실적임.

다고 볼 수 있다.

본 협의회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요금체계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간에는 별도의 협정이나 상호약속에 따라 서로 다른 이용요금지불제도도 채택하고 있으며 요금지불방식은 현금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에서는 전표도 활용하고 있다.

3.8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본 협의회는 회칙 제3조(사업)에는 여러 항의 협력사업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료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과 상호대차제도의 운용과 같은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으로 제시하여 본 협의회 전체 활동에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비중을 크게 높여 두고 있다. 또한 『자료상호대차협약규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적 배경을 든든히 해 두고 있으나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별도의 실행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1991년 4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행된 상호교류 실적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상호대차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이 명확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원문정보복사제공의 경우 이용요금은 제공기관별로 정하고 있는 자체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3.9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본 협의회는 회칙 제5조에 명시된 다섯가지의 협력사업중에서 도서관상호협력활동과 관련된 항목을 첫번째 협력사업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회원기관간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활동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11일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본 협의회 회칙과 함께 『자료상호이용규약』을 제정하였다.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종합목록인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의 발간을 위하여 일련의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또한 협력활동을 주관해야 하는 조직구조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실제

적인 실시통계자료도 없기 때문에 회원기관간의 정보교류 활동 즉,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은 아직까지는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4.1 요약 및 결론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던 모든 도서관상호협력기구를 현존 여부에 관계없이 망라적으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나라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 공식으로 등록된 6개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와 한국도서관협회에 공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3개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있다. 그 중에서 2개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는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였으며 7개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다양한 상태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는 전일제 인력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모든 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100%의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협력기구는 운영인력의 열세에 기인하고 있다.

다.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규정을 회칙이나 별도의 규칙 또는 규약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관례에 의하거나 구두로 성립된 약속에 의거하여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하는 도서관상호협력기구보다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이 활발하다.

라.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거나 실행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협력활동이 그렇지 못한 협력기구에 비하여 활발한 양상을 띄고 있으므로 협력기구의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행위원회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될 수 있다.

마. 종합목록은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발족 초기부터 종합목록을 제작하고 활용한 협력기구는 2개 기구에 불과하고 현재 활동이 중지된 협력기구는 종합목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종합목록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협력활동이 가장 활발한 2개의 기구는 종합목록 갱신빈도에 있어서도 타 협력기구보다 월등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협력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을 통하여 이용한 정보자료에 대한 이용요금의 지불제도는 3개의 협력기구에 채택, 실시되고 있으며 그밖의 협력기구에서는 협력기구의 주관으로 되지않고 개별회원기관간에 별도의 협정에 의하고 있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제언

가. 본 연구수행과정에서 각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도서관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실적을 기록한 문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련문서 보존상태가 지극히 부실함이 판명되었다. 그 중에서도 상호협력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자주 변동되었던 경우가 더 심각했다. 따라서 각 협력기구는 상호협력활동 내역과 실적을 포함한 모든 문서의 관리와 보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문서의 훼손은 역사의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핵심은 정보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도서관상호협력활동이다. 지금까지 교육훈련이나 출판활동에 역점을 두었던 도서관상호협력기구들은 제도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중심으로 공동수서, 분담목록, 공동보존 등의 협력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배려와 실행이 요망된다.

다. 우리나라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정보자료공동활용을 위해서는 시스템 자동화와 데이터 통신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다.¹⁸⁾

18) Rush, James E., "Technology-driven Resource Sharing : A Review of the Future", *Resource Sharing & Information Networks* 8 : 1(1992), p. 142.

전자도서관 체제는 현실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¹⁹⁾ 컴퓨터와 원거리 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의 축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전개에 따라 예상되는, 신기술에 의한 도서관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라. 미국의 전문도서관이 평균 1.9개의 도서관상호협력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²⁰⁾ 여러 관종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복합형태(Multi-type)²¹⁾의 도서관협력체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²²⁾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정보자원의 절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 관종이나 동일 주제간의 도서관상호협력 단계를 초월하여 전국의 모든 도서관을 망라하는 복합적인 도서관상호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육성하여야 한다. 전국 정보네트워크의 궁극적 목적은 한나라 안의 모든 도서관을 그 종류, 규모, 지역 및 운영자에 상관없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실상 하나의 통합된 정보봉사기관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자료를 누락없이 수집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면서 수집된 정보자료를 경제적으로 조직, 축적하고, 국내의 어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봉사이든 모든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것²³⁾ 이기 때문에 도서관들이 국내 여러 곳에

19) Kibbey, Mark and Evans, Nancy H., "The Network is the Library", *EDUCOM Review*, Fall 1989, p.15

20) Paskoff, Beth M., "Networks and Networking : How and Why Should Special Libraries Be Involved", *Special Libraries*, Vol. 80, No. 2(1989. Spring), p. 99

21) Ching-chih Chen and Peter Hernon, *Criteria of Effectiveness for Network Delivery of Citizens Information Through Libraries*, Washington, D.C.:U.S. Department of Education, 1982.

22) Kittel, Dorothy, *Library Programs : Interlibrary Cooperation and Resource Sharing Fiscal Year 1987*,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Education ;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1989, p.10.

23) 최성진, 조인숙, 정보봉사론,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2, pp. 183-184.

홀어진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려면 도서관간의 전국적인 협동체제²⁴⁾ 즉, 국가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마. 한국도서관협회는 협회의 권한과 의무로서 우리나라 도서관상호협력기구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도서관협력기구에 대한 입장정리 즉, 한국도서관협회에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활동이 빈약한 도서관상호협력기구는 제명하고 활동이 활발한 미등록 도서관상호협력기구로 하여금 그 임무와 권한을 승계토록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스티븐스²⁵⁾는 OCLC의 성공적 발전의 주요 원인을 킬고르(Fred Kilgour)와 같은 대단한 인물의 지도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특색있는 지도능력을 갖추고 도서관상호협력기구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도서관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서관상호협력기구를 운영하는 집단의 담당직원은 물론 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단위 도서관의 구성원이 다함께 협력기구의 발전을 위하여 방관하는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4) *ibid.*, p.183.

25) Stevens, Norman D., "Modernizing OCLC's Governance," *Library Journal*, 102 : 19(1 November 1977), p.2216.

참 고 문 헌

- 1) 國立大學圖書館報第一輯-第十一輯. 서울;대구: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 1983-1993.
- 2) 김영수. 한국신학교육도서관의 실태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3) 신학문헌정보제21집-제27집. 서울: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1985-1988.
- 4) 연구단지정보관리편람. 서울: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1992.
- 5)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 1945-1974.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77.
- 6) 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二十年史. 서울: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 1990.
- 7) 한상철, 이인순. “국내 의학도서관 상호대차업무 현황 및 분석-자료복사교환업무를중심으로-.” 한국의학도서관 18:1-2(1991. 12): 53-62.
- 8) Besemer, Susan P.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Library Networks.” *Resource Sharing and information Networks* 4: 1(1987. 1): 17-38.
- 9) Chen, Ching-chih and Peter Hernon. *Criteria of Effectiveness of Net-work Delivery of Citizens Information through Librari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82.
- 10) Eaton, A. “Library Resource Sharing in the United States.” in H. D. L. Vervliet ed. *Resource Sharing of Libraries in Developing Countries*. Munich: K. G. Saur, 1979, pp. 254-261.
- 11) Kent, Allen and Thomas J. Galvin eds. *Structure and Governance of Library Networks: Proceedings of the 1978 Conference in Pittsburgh, Pennsylvania*. New York: Marcel Dekker, 1979.
- 12) Kent, Allen & Thomas J. Galvin eds. *Library Resource Sharing: Proceedings of the 1976 Conference on Resource Sharing in Libraries, Pittsburgh, Pennsylvania*. New York: Marcel Dekker,

1977.

- 13) Kibbey, Mark and Nancy H. Evans, "The Network is the Library," *EDUCOM Review*. (Fall 1989) : 15-20.
- 14) Kittel, Dorothy, *Library Programs : Interlibrary Cooperation and Resource Sharing Fiscal Year 1987*.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Education ;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1989.
- 15) Paskoff, Beth M, "Networks and Networking : How and Why Should Special Libraries Be Involved," *Special Libraries* 80 : 2(Spring 1989) : 94-100
- 16) Peat, Marwick, Mitchell & Co, *Evaluation of Pilot Library Projects*. New York : Peat, Marwick, Mitchell & Co, 1983.
- 17) Patrick, Ruth J, *Guidelines for Library Cooperation : Development of Academic Library Consortia*. Santa Monica : System Development Cooperation, 1972
- 18) Rush, James E, "Technology-Driven Resource Sharing : A View of the Future," *Resource Sharing & Information Networks* 8 : 1(1992) : 141-157.
- 19) Stevens, Norman D, "Network Organization : Current Status and Concerns," *Resource Sharing & Library Networks* 1 :1(Fall 1981) : 19-35.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library Cooperations of Library Cooperatives

Kim, Chang-Keun*

In this study all kinds of Library Associations in Korea counted as Library Cooperatives are surveyed under the categories of their collaborative activities as well historical develop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

1) The library cooperatives which have more working personnel are carrying out interlibrary cooperations more effectively, than those which have fewer working personnel.

2) The library cooperatives operating with established and realizable regulations or rules are more progressive in interlibrary cooperations than those operating with traditional practices or customary rules.

3) The library cooperatives with executing committee appear to be more progressive in interlibrary cooperations than those without it.

4) Both updating frequency of union catalog or union list and publishing intervals of supplementary editions are proved to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library cooperations.

5) Three of library cooperatives are employing the systems for payment of information provisions in interlibrary cooperations but the other library cooperatives are employing no payment systems, or not following such systems.

By the results, six kinds of suggestions to improve the activities of Korean library cooperatives have been expressed.

* Manager, Computer Cente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